

시드니, 도시 40% 녹지화하는 'Greening Sydney 2030' 발표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city-sydney-greening-plan>

<https://meetings.cityofsydney.nsw.gov.au/documents/s50798/Attachment%20A%20-%20Draft%20Greening%20Sydney%20Strategy.pdf>

시드니시가 공원을 개선하고 옥상·벽면·가로공간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50년까지 도시의 40%를 녹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시의회 승인을 받은 'Greening Sydney 2030'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는 5월 말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드니 시장은 "도시에서 나무와 녹지는 도로나 광역인터넷망만큼이나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녹지 조성을 통해 지상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골목 개발

이번 계획에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콘크리트 차로와 좁은 골목의 녹지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방안과 디자인을 찾는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시는 계획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정해 신규 개발 시 옥상녹화를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유도할 예정이다.

공평한 접근을 고려한 녹지 배분

계획에서는 삶의 질과 녹지의 상관성이 매우 크며, 이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거리·공원·건물을 분석해 도시 녹지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녹지를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Green Factor Score 도입

시는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도시녹화의 양과 질을 정량 평가하는 도구 'Green Factor Score'를 도입한다.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유형과 위치 등에 따라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며, 관련 계획규제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

Greening Sydney Fund 설립

시는 'Greening Sydney Fund'를 설립해 개발행위 등에서 불가피하게 벌목을 행할 때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특히 사유지 녹지화를 위해 쓰이게 되는데, 주민 식목과 옥상녹화 사업이나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하게 된다.



'Greening Sydney 2030'의 주거지 녹지 확충방안

출처: 시드니시 홈페이지.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rticles/city-sydney-greening-plan>